



김재수 사장
(내추럴엔도텍)

관련법규 - 시장중심의 운용으로 기술개발업체에 힘을

필자가 기술개발제품을 들고 Funding을 받고자 투자기관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심사역과 그분의 상사는 필자에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필자의 마음은 답답함으로 차 있었다. 은유적으로 표현된 그분들의 요지는 "건강식품을 하는 것도 벤처냐?"는 것이었다. 그 후 열심히 기술에 매진하고 회사가 모양을 갖추었을 때의 일이다. 국내 생명공학 전시회에 출품한 우리회사 전시회에, 대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이것 뭐야! 농산물도 전시회에 나왔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학생들이 시장과 경제 그리고 기업에 대해 무엇을 알겠냐고 자위하려 했지만, 시장성과는 동떨어진 하이테크와 신기한 것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부터 들어온 터라 답답함은 더 컸다.

심지어 그나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선발 벤처기업조차도 자신들은 현재는 건강식품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DNA를 연구하는 생명공학 회사라나?

창업한 후 시간이 흘러 국내외의 시장상황과 다른 회사의 많은 제품을 알게 되다보니 한국에서 건강식품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에 답을 찾은 느낌이다. 이는 세계건강식품 시장속의 한국제품의 위상과도 같다는 것이다. 과거 법규의 규제하에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제품을 출시하고 마케팅을 할 수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되는 신기한 방법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때문 아닌가 생각해본다.

인삼 등, 동양의 신비한 약초 등을 꾸준히 연구해 온 선진국들을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 1994년 클린턴 행정부때 DSHEA (Dietary Supplement Health & Education Act) 법의 통과로 완전한 시장 자율, 즉 시장이 제품을 심판하는 제도가 정착되면서 그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납품가 기준 (소비자가 기준이 아닌) 30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워낙 버섯 등 식물 유래 의약품 허가 건수도 많다. 허가가 쉽다는 표현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다. 그 시장규모가 10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납품가 기준이 아닌 소비자가 기준으로 이제 1조원 정도의 작은 시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에 따라 중국과 함께 약초에 대한 원조를 자부하면서도 세계시장 속에서 메이드인코리아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대표 약초인 인삼류가 세계시장 점유율 3%이라는 사실은 안타깝기만하다

세계 메이저 건강식품 업체 바이어들은 이렇게 묻곤한다. "그렇게 좋은 제품을 너희 한국에서는 얼마나 팔았나?"

이제 새로운 법-건강기능식품법-이 금년 8월에 발효한다고 하니 기대반 걱정반이다. 부디 시장중심의 법운용이 기반이 되고 국내시장이 우선 활성화됨으로써 기술개발

과 수출이 증대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미국에서 인기있는 의대로 평가되는 하버드 의대에서는 임상보다는 바로 건강 즉 영양과 대체의학에 관심을 두고 질환예방과 질환의 자연치유에 강한 곳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MD(Medical Doctor)라는 학위 뒤에 NMD (Natural MD)라는 학위를 붙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더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건강식품의 원조가 아닌가?

정부의 중소 벤처에 대한 지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한가지 더 부탁 드린다면 부디 업계 관련법규의 시장주의 운용으로 기술개발업체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하고싶다.

주석) 내추럴엔도텍은 알려진 원료를 배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제1세대 제품에서 벗어나 오랜 연구를 거쳐 자체 연구한 식물 원료로 동물실험 임상실험을 거친 제3세대 제품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로, 약초와 내분비학을 접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 삼성의료원에서 임상실험중인 새로운 식물성 에스트로겐 제제를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하였고, 식물성 당뇨치료제의 경우 삼성의료원에서 임상실험을 완료하고 곧 특허증을 받을 예정이고, 식물성 IGF-1 분비촉진제는 고려대에서 임상실험을 완료한 바 있다.